

# '광주형일자리' 노사책임경영 실현해야

### 시민모임, 노사상생 정신 부정 우려 오늘 기공식장 앞서 집회 적정임금·노동시간·원하청관계 개선 등 4대 원칙 요구키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은 26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정의당 광주시당 그리고 기아차 공장 직원 등 광주지역 노동자 등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같은 시각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기공식이 열리지만 이들은 결의대회를 갖는다. 노동존중 사회통합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행 촉구하는 결의대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광주형일자리 보이콧 결정(광주일보 2019년 12월 17일 1면)을 시작으로 광주경실련의 지역노동계 사업 참여 제도 보장 촉구하는 성명에 이어 현장 집회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이들은 새해부터 광주시청, 국회, 청와대를 찾아 광주형일자리 정신 복원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기공식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노사상생 정신이 부정되고 현대자동차그룹 등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대로라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경영하고 함께 희생하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 공장처럼 운영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 대기업 여는 현장처럼 노사 분규가 일상화돼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시민사회가 또다시 나선 것이다. 광주형일자리가 사실상 '현대차 자동차 공장' 사업으로 전락하는데도 광주 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세금 483억원 출자)인 광주시가 투자자들에게 끌려다니고만 있다는 게 지역 노동계나 시민사회 판단이다.

시민모임 측은 집회에서 광주시와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태세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투자자 중심 경영이 아니라 노사책임 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진

적정임금 책정(노동자 평균 급여 2배 이내),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요구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노동계는 지난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광주시에 보냈으나 광주시는 4개월 가량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역 노동계가 기공식 등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리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노동계를 찾아가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설득에 나섰다. 노동계는 “진정성이 없다”며 보이콧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현대자동차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글로벌자동차 기업답게 노사책임 경영 실현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민주노총 23년만에 '제1 노총'으로

### 조합원 수 한국노총 첫 추월...노정관계 등 변화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정부 공식 집계상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질렀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빠르게 조직을 확대해 데 따른 것으로, 노정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민주노총이 조직 규모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제1 노총'에 오른 것이다. 양대 노총 구도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쪽을 제1 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에 못 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000명으로 뛴 데 이어 1년 만에 96만8000명으로 36.1% 급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절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촛불 혁명'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 전국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올해 완료

전국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올해 완료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본 구상이 나온 2003년 이래 16년 만이다.

정부는 기본 구상을 마련한 이후인 지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다.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종사자 4만 2000명, 세종시에 19개 기관 4000명이

이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의 경우 16개 기관 6923명이 지방으로 내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온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22개 공공기관 6000명은 정책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별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한일 정상회담, 관계개선 계기...낙관은 어려워”

중국 청두(成都)에서 2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25일 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떠오르는 것이 중일관계가 얼어붙었던 2014년 11월의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라며 “약 3년 만의 당시 중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경제적용 피해자 및 수출 규제 등 현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

지 못했지만, 두 정상이 한자리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한때 반일 캠페인을 통한 지지를 향상을 노렸지만, 측근의 스캔들이 불거진 것도 있고 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내년 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을 피할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바 유키 도시샤(同志社)대 교수(한국정치)도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대립은 대립으로 남겨 놓고 서로 만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1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끝까지 할머니의 뜻 이어갈게요”...올해 마지막 위안부 수요시위

“올해 다섯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서 스무 분만 남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올해 마지막이자 1419번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올해 별세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 다섯 분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열렸다. 매년 마지막 수요시위에서는 그 해 별세한 할머니들을 추모

해왔다. 김복동·곽애남 할머니 등의 생애를 소개한 전시물 앞에는 흰 국화꽃을 비롯해 빨강, 분홍 등 색깔의 꽃이 하나둘 놓였다. 분 행사가 시작되자 전 추모 꽃을 놓으려는 시민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연희중학교 3학년 황인혁 군은 추모사에서 “할머니들은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과 시련을 반복했지만 더욱더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으셨고 정의, 신념, 겸손과 함께하셨다”고 기렸다.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올

해도 일본 정부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내는 게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공동대표는 “피해 할머니들의 소원이었던 전쟁 없는 사회, 그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며 일본에서도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 속에도 수요시위가 열린 옛 일본대사관 일대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생, 시민 등 단체 추산 약 800명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연합뉴스

## 무안공항·순천역을 녹색 휴식공간으로

### 전국 12곳에 95억 투입 내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무안공항과 순천역 등 전국 12곳에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된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내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지로 광주·전남 3곳을 포함해 전국 12곳을 선정했다.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 부지와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내·외 정원으로 나뉘어 올해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추진한다.

광주·전남지역 사업 대상지로는 실외정원의 경우 목포대가 포함됐고 실내정원은 순천역, 무안국제공항 등이다.

산림청은 실내정원에는 10억원, 실외정원은 5억원 안팎 등 모두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다중이용 공공시설과 국유지 등을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 광주시민을 위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완전정복 세미나”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지르는 알찬강의!  
2020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권 아파트 전망과 틈새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20년 부동산강사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원 초청강의

- ◆ 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14시~16시
- ◆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7 5·18기념관(주차장 완비)
- ◆ 후 원: (사)한국산업교육원, (주)도담건설
- ◆ 특 전: 참가자 추천 후 정관장 홍삼, 전기스토브, 햄살 등 증정 ※ 선착순 99명 전화접수 마감

전화 062) 376-7605 010-9911-7605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통고개역 인접 소방도점 2층 주택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4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은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점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남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삼선리 신성리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9143㎡ 집 67㎡ 가능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450㎡ 건물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수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살·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백양사내 내장사사이 추령도개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1억45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양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 47㎡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농성동 상공회소 뒤면 소방도점 상가주택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9천

특급물건

- 광산구 북평동 그린벨트 3002㎡ 도로점 투자지 최이음 5억5천
- 목포대부근 청계동 2층주거지 4413㎡ 강정 5억7천 농성 3억4천 매도 4억6천
- 화순군 동면 사성지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봉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사천(명령면) 11050㎡ 대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